**왕하1204 Note**

**호크마 주석**

성 경: [왕하12:4]주제1: [요아스의 유다 통치]주제2: [성전 수리를 명하는 요아스]

▶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. -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를 위하여 한 때 모세가 법막(法幕)을 위해 거두었던 세금을 다시 바치게 하였다(대하 24:6). 이때 거두어 들인 세금의 종류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.

 1) 사람의 통용하는 은(銀). -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'각 사람이 위로 지나갈 때에 드는 돈'이다.

이것은 일종의 인두세나 주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구 조사에 의해 계수된 20세이상의 장정들로부터 받는 돈인데 이는 출 30:13, 14에 근거한 세금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건에 의해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도 아니고(Ewald)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돈(Luther)도 아닌 것이다. 그런데 포로 시대 이후에도 이러한 종류의

세금이 해마다 징수되었던 것 같다(느 10:32).

2) 각 사람의 몸 값으로 드리는 은. -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'각자의 평가에 대한 사람의 돈'이란 뜻이다(Keil & Delitzsch). 그래서 이것은 서원하는 자들에 대한 제사장의 평가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으로서 연령이나 남녀의 성별의 차이에 따라 그 징수액이 각각 달라졌다(레 27:2-8). 그리고 사람이나 생물의 첫태생을 여호와께 바칠 때 드리는 세금도 여기에 포함된다(민 18:15,16).

3)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은. - 자발적인 헌물로서 성소에 바치는 은을 말한다. 이것은 성막에 관련된 경우와 같이(출35:21) 자원하는 예물이었다.

그런데 이 돈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각 자기가 살던 성읍에 가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받아와서 성전의 퇴락한 곳을 고치는데 사용하였다(B hr, Keil & Delitzsch, Vol. 3, p. 366).

한편 역대기에서는 이 세가지의 종류의 세금을 전체적으로 통칭하여 "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법막을 위하여 정한 세"라고만 표현하였다(대하 24:6). 그런데 이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반 세겔의 헌납(출 30:12, 13)까지도 포함한 것이다.